



2018년 고려요양병원 시무식 행사

이번 2018년 1월 2일 고려요양병원에서는 신년 시무식을 실시하였다. 올해는 무술년 도약의 해로써 무(戊)는 땅이나 큰 산을 의미하고, 술(戌)은 십이지 동물 중 개를 의미하여, 황금 개띠의 해라고도 한다.

이호근 병원장님께서 신년인사로 2017년 병원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주신 병원 가족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며, 2018년에도 병원 가족여러분들은 입원해 계시는 어르신들 위해 항상 건강하고 웃음이 끊이지 않는 화목하고 편안한 하루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라는 당부 말씀을 하셨다.

이어서 5년 근속 공로상 수여식이 있었다. 추영선 선생님 외 7명은 5년간 고려요양병원을 위해 열심히 일한 노고를 작게나마 황금 열쇠 수여로 많은 직원들의 축하와 박수를 받았다.

그리고 야외 정원으로 이동하여 기념사진 촬영 후 각자 소망을 담은 풍선을 만들어 “행복하자! 건강하자! 사랑하자!”를 외치며 하늘 높이 풍선을 날려 보냈다. 소망을 담은 풍선이 하늘에 수놓아지면서 한 폭의 수채화 가 펼쳐지는 듯 했다.

시무식 마지막으로 임직원들은 함께 다과와 차를 나누며 새해를 맞이하였다.
무술년 새해에는 고려병원 가족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한해가 되길 빌어 본다.

고려요양병원 시무식 행사 스케치



2018년 새로운 시작을 위해 고려요양병원의 미션, 비전 선서를 실시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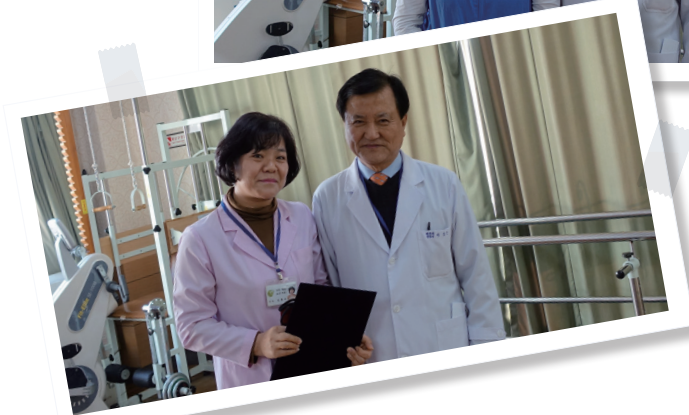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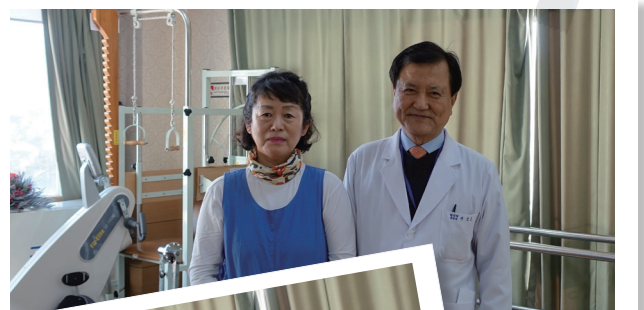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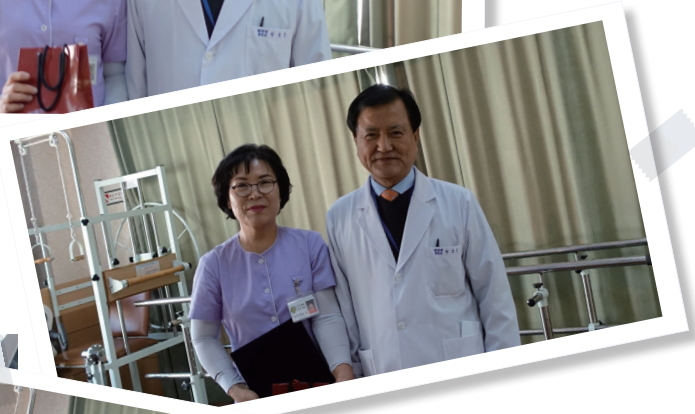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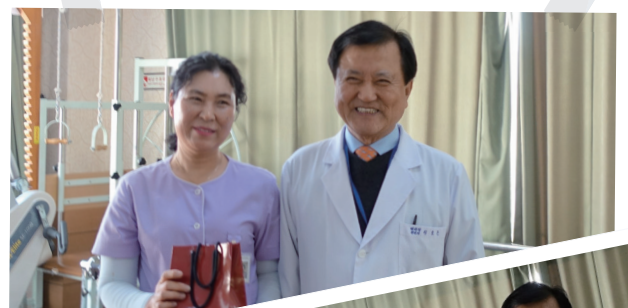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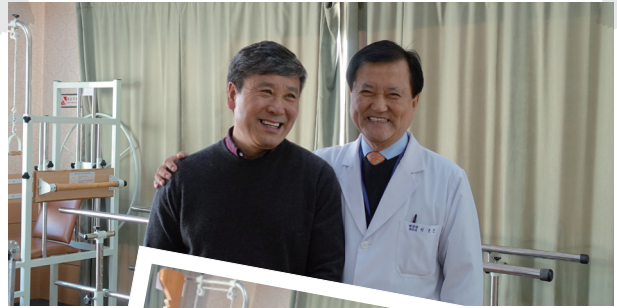
어르신들을 기리는 묵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소망풍선을 날리기 행사를 위해 정원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모두 소원한 모든 일들이 다 이뤄지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 5년 근속자 상장 및 상품(황금열쇠) 수여식 —
이번에 수상하신 5년 근속자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의학칼럼] 치매(Dementia)



고려요양병원 김희숙 진료원장

치매란 말은 라틴어에서 유래된 말로써 ‘정신이 없어진 것’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태어날 때부터 지적 능력이 모자라는 경우를 지체장애라고 부르는 반면 치매는 정상적으로 생활해 오던 사람이 다양한 원인에 의해 뇌기능이 손상되면서 이전에 비해 기능이 지속적이고 전반적으로 저하되어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나타나는 상태를 말한다.

2014년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은 남성이 약80세, 여성은 85세로 볼 수 있는데 치매 유병률은 65세 이상 10%, 80세 이상 33%, 85세 이상 50% 정도로 보편될 것이다. 2011년 의학전문지 랫싯 신경학에 발표된 연구에 의하면, 만약 당뇨, 중년기 고혈압, 중년기 비만, 우울증, 운동부족, 흡연, 저학력의 7가지 요인을 없앨 수 있다면 치매 유병률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이는 중년기에 이런 위험요인들을 미리 제거 한다면 노년기의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중 중요한 3가지를 꼽으면 낮은 교육수준, 운동부족, 흡연이다. 50세 이하의 젊은 나이에 발병하는 치매의 대부분은 유전적인 영향이 강하며 늦게 발병할수록 환경적 요인이 강하다. 치매 중 가장 많은 알츠하이머 치매는 약 10%가 유전자의 문제로 발생되고 90%는 환경적인 생활습관에 의해 생기며 예방이 가능하다. 알츠하이머 치매는 여자가 남자보다 1.26배 많이 발병한다.

■ 조기발견

‘무언가 이상해졌다?’ 평소와 다른 인지기능이 있으면 전문의를 찾아 검사를 통해 진단을 받는 것이 좋다. 흔히 나타나는 초기증상으로는 말을 반복하고 약속을 잊어버리고 소지품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등의 단기 기억장애가 있다.

■ 노화증상과의 감별

건망증이 심해졌음을 인지하면 치매는 아니며 치매환자는 그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건망증은 소소한 부분을 잊어버리지만 힌트를 주면 기억하며 치매는 그 일 자체를 알지 못한다. 예를 들어 열쇠를 잊어버리고 안 가져오면 건망증, 어디에 사용하는지 모르면 치매이다.

■ 치매원인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은 100가지가 넘으며 알츠하이머 치매는 발병하면 완치가 불가능하다. 우리나라 사람의 치매 중 알츠하이머 치매가 70%, 혈관성 치매는 17%를 차지한다. 그 외 전두엽 치매, 우울증, 뇌종양, 뇌수종, 간질, 외상성 치매, 갑상선기능항진증, 알콜 중독, 신경매독 등이 있다. 혈관성 치매는 술, 담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치료로 예방이 가능하나 알츠하이머 치매는 치료가 불가능하며 전체적으로 10명중 2명은 완치가 가능하다.

■ 생활습관

활동량이 적으면 당뇨, 혈관계 질환 위험이 크며 활동량이 많아야 뇌에 혈액공급이 많아지므로 치매 발병률이 낮아진다. 또한 만성피로는 뇌세포 파괴를 야기하여 치매 발병률을 높이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단기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세포가 파괴될 수 있으며 머리에 충격이 가해지거나 정신적 충격을 받으면 뇌를 위축시켜 치매 발병률을 높하게 되고 우울증은 가성 치매를 일으키기도 하며 65세 이상의 우울증은 치매로의 접근성이 높아진다. 최종 학력이 낮은 경우 신문이나 잡지를 읽어 지식을 쌓았다면 대학 졸업한 뒤 지식 쌓기를 게을리 한 사람보다 치매에 걸릴 확률이 낮다. 잦은 음주와 과음은 치매 발병률이 2.8배이며 흡연은 5배이다.

■ 고쳐야 할 습관

술, 담배, 과로, 스트레스 등

■ 치매 예방

1. 6개월~1년 간격으로 정기적 검진
2. 하루 1회 이상, 1회 5분 이상 전화하기
3. 식사는 적절히(충분히 섭취)
4. 하루 30분 이상, 주3회 이상 운동하기

■ 치매 예방 관리 10대 수칙

- ① 손과 입을 바쁘게 움직여라.
- ② 머리를 써라.
- ③ 담배를 끊어라.
- ④ 과도한 음주를 피하라.
- 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라.
- ⑥ 몸을 많이 움직여라.
- ⑦ 부지런한 사람들과 만나고 어울려라.
- ⑧ 치매의심 시 보건소 또는 병원을 찾아라.
- ⑨ 치매진단 시 신속히 치료를 받아라.
- ⑩ 치매치료를 꾸준히 받아라.

■ 치매를 예방해 주는 음식

- ① 견과류 (호두, 밤, 도토리, 잣, 땅콩, 아몬드, 호박씨 등)
- ② 등푸른 생선
- ③ 카레
- ④ 블루베리
- ⑤ 계란, 콩
- ⑥ 들깨잎
- ⑦ 기타
 - 물 많이 마시자.(조금씩 자주)
 - 과일과 야채주스(주3회 이상)

■ 치매나 경도인지장애 진단 후 자녀들의 대처방안

- ①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린다.
- ② 하루 30분 이상 유산소 운동을 하도록 한다.
- ③ 식사 잘 챙겨드린다.
- ④ 병원 치료를 잘 받도록 한다.

※ 그 후 헤어짐을 미리 준비하라는 신의 선물로 생각하며 좀 더 부모님께 신경 쓰고 지나온 추억을 공유하며 시간이나 돈이 없어 못했던 일을 조금씩 하고 못 만났던 친지들을 만나보고 인지 기능이 있을 때 유산상속 등 주변정리를 하도록 한다.

- 글 : 김희숙 (고려요양병원, 진료원장)

[의학칼럼]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재활치료의 필요성



정덕분 물리치료 팀장

사회발달과 더불어 의학의 초고속 발달로 전 세계의 노인인구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재활과 요양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현대의 노인재활의학은 연장된 수명을 단지 더 연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연장된 수명이 기능적으로 충족되게 하여 건강한 삶을 오래 살 수 있게 하는 의료분야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 없어 65세 이상의 노인인구의 급증으로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면서 그에 따른 의료비 지출이 증가되고 있다.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65세 이하의 사람들에 비해 장애는 두 배 이상, 활동의 제한은 네 배 이상 많으며, 병원 입원의 빈도가 두 배 이상 많고 입원기간도 두 배 이상 길어지며 일상생활을 보조해야 할 보조자가 세 배 이상 필요하기 때문에 노인 환자들의 독립적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재활치료가 특히 중요하다.

노인재활은 노인에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장애를 최소화하여 무운동으로 인한 여러 생리적 퇴보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했던 사회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노인환자의 효과적인 재활치료를 위해서는 정확한 평가와 현실 가능한 목표의 설정, 다양한 전문과의 협진, 효율적인 치료 방법의 조절 등이 필요하다.

재활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는 환자의 운동능력, 근력과 관절 운동 범위, 신경학적 회복, 기능적 장애 등을 고려해야 한다. 노인 환자들에서는 운동 내성이 재활 치료를 제한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량 조절이 매우 중요하며 1주일에 3-4회, 2-30분 정도의 운동을 시행하는 것이 좋다.

걷기운동은 장소 및 기구에 제약을 받지 않고 실시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으로 심폐지구력을 적절하게 발달시키고, 인간생활에 기본적인 활동이며 안전한 운동으로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거의 없어 움직임에 어려움이 없는 노인에게 적합한 운동으로 소개되어지고 있다. (걷기 운동 전후의 과정에 적절한 준비운동과 스트레칭 필요)



자연과 함께 맑은 날씨에 야외에 나오셔서
어르신들끼리 담소를 나누십니다.



좋은 날씨에는 어르신들이 병원 정원에 나오셔서
산책을 하시고 간단한 운동을 하십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이고 있는 만큼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노인전문병원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뿐만 아니라 향후 우리 사회가 건강한 노령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능장애의 직접적인 원인질환의 발생 예방에서부터 치료, 회복, 재활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서비스가 연속적인 흐름 속에서 제공될 수 있는 정확한 체계의 구축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고려요양병원에서는 어르신들이 일상적인 생활을 하실수 있도록 다양한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걷기운동을 유도하여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고려요양병원 복주머니 만들기 프로그램

고려요양병원에서는 한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르신들의 안녕과 평안을 함께 빌어보는 복주머니를 만들어 올 한해는 복주머니 속에 복을 함께 채워 보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복주머니 만들기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들의 인지기능을 향상시키고, 신체적 훈련을 함으로써 퇴보하는 인지기능 및 근육발달에도 도움을 드리고자하였다.

이번 프로그램은 12월 중순부터 1월 중순까지 한 달간 고려요양병원 3층 강당에서 매주 수요일 오후2시에 진행되고 있으며, 프로그램을 신청하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참여하신 어르신들께서는 직접 복주머니를 만들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계신다.



복주머니 만들기는 어르신들 인지기능발달에 도움을 줍니다.



아름답게 복주머니가 완성되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만든 복주머니입니다.



어르신들께서 즐겁게 복주머니를 만드십니다.

복주머니 만들기는 미술치료에 포함되는 하나의 심리치료의 일종이며, 복주머니 만들기는 입원하신 어르신들의 기분 이완작용과 감정적인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복주머니 만들기과 같은 미술 치료는 우울증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불안 등의 심리 치료에도 유익하다.

각 나라마다 다르지만 미국이나 유럽에서 미술 치료의 역사는 50여 년이 넘는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정신과에서 환자들을 대상으로 미술 활동을 시도하였으나 본격적으로 알려지고 치료 현장에서 이용된 것은 1990년대 이후이다. 1992년 한국미술치료학회가 설립된 이후로 여러 대학원 등에서 미술 치료를 전문적으로 강의하고 미술 치료사 양성 과정이 만들어져 있으며 양적, 질적으로 다양한 학문적 연구가 병행되고 있다.

고려요양병원에서도 이번 복주머니 만들기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심신안정과 인지기능향상과 신체적 활동량 증가를 위해 다양한 미술치료들을 개발하여 어르신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어르신들께서는 복주머니 만들기를 통해 새로운 추억을 병원에 함께 계시는 어르신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고 계신다.

고려요양병원 웃음치료 프로그램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며 어르신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함께 웃으며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십니다.



어르신들께서 강사선생님의 율동에 따라 즐겁게 율동을 따라하십니다.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픈 일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두 상황에서 공통적으로 안 되는 일이 뭘까? 바로 웃는 것이다. 몸과 마음이 아플 때는 아무리 웃긴 것을 보아도 웃어지지 않는다. 즐거운 감정이 생기지 않는 탓이다. 물론 때로는 하루 정도 웃지 않고 지낼 수도 있다. 그러나 웃지 않는 시간이 길어지면, 어느 순간 웃는 법을 잊게 될지도 모른다. 문제가 심각해지면, 웃는 법을 잊은 몸과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신체의 병을 만들 수도 있다. 이것은 마치 한 끼쯤 못 먹었다고 죽진 않지만, 오랫동안 굶으면 영양실조로 쓰러지거나 죽을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다. 밥은 몸의 영양분이지만, 웃음은 마음의 영양분이다. 내 몸이 아파서, 가족이 아픈게 속이 상해서, 환자의 간병 때문에 지치고 힘들어서 많은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웃는 법을 잊고 산다. 웃음치료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웃음을 잃은 이들에게 웃음을 찾아주는 치료법이다.

웃음치료란 웃음을 활용하여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경감시키는 치료법이다. 웃음치료는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극복하는데 보완적 방법으로 사용되어왔다. 웃음은 오래전부터 우리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것이다. 이에 웃음을 잃어버리기 쉬운 노년기에 남으로 부터라도 웃음을 찾을 수 있도록 고려요양병원에서는 웃음치료 프로그램을 매월 1회 진행하고 있다.

경북대학교 평생교육원전문교수인 황진이 선생님께서 매달 어르신들의 행복한 웃음을 드리기 위해 함께해주신다. 황진이 선생님은 위덕대학교 평생교육원 전문교수, 국제평생교육원 대표강사, 한국웃음치료연구소 경북·포항 대표 원장으로 지역사회에 많은 봉사를 하고 계신다. 매번 고려요양병원을 방문하여 어르신들을 위해 즐겁고 신명난 웃음을 유도하여 닫힌 마음을 열어주시고 몸과 마음을 한층 밝게 만들어 주신다. 우리 모두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한번쯤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면 하며, 우리병원에 계시는 어르신과 직원 모두가 언제나 함박웃음 꽃을 피울 수 있는 일들이 많길 바란다.

- 글 : 서울해 (고려요양병원, 사회복지사)

[인터뷰] 봉사는 내 삶의 활력소

이상일씨께서는 약 2년 전부터 고려요양병원에서 어르신들을 위해 목욕봉사를 실천하고 계십니다. 봉사라는 것이 마음 먹은 대로 실천하는 것이 쉽지가 않고 도중에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목욕봉사는 봉사자의 신체적 부담이 크기에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일씨께서는 지금까지도 빠짐없이 병원에 찾아오셔서 언제나 밝은 모습으로 봉사를 몸소 실천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상일 씨를 뵙고 간단한 인터뷰를 진행하려 합니다.



이상일씨와의 인터뷰 모습

Q: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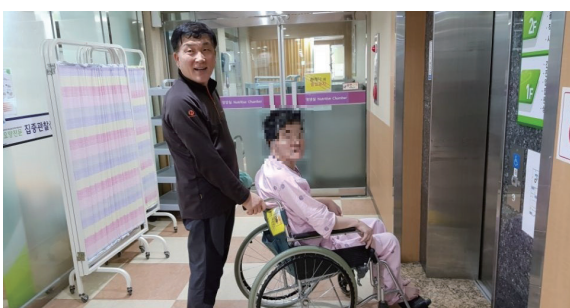
A: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요양병원에서 1년 7개월째 목욕봉사를 하고 있는 이상일입니다.

Q: 봉사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어떤 계기가 있으신가요?

A: 제가 원래 어르신들 돕는 것을 좋아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봉사를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 34년 동안의 직장생활을 퇴직 후 운동을 해보고 싶어서 골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년 정도를 하고나니 무언가 허전하고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을 해볼까? 고민하다가 고용보험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하였더니 간호학원을 추천해 주었고 학원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자격증 취득으로 여러 곳에서 러브콜이 있었지만 오랜 직장생활로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봉사를 생각하게 된 것이죠. 어디에 가서 어떤 봉사를 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이호근 병원장님과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여서 그래도 모르는 곳 보다는 아는 사람이 있는 곳에 가서 봉사를 한 번 해보자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Q: 목욕봉사는 젊은 사람한테도 신체적 부담이 있습니다. 혹시 봉사를 하시면서 신체적으로 힘들어서 포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A: 네, 힘들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목욕봉사가 제게 일이 아닌 어르신들 돕는다는 것이어서 힘들다고 그만둔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주2회 정도로 제 건강도 지켜가며 잘 조절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목욕을 위해 목욕시설로 이동중입니다.

Q: 봉사를 하고나면 몸도 마음도 피로하고 지치기 마련인데 이상일씨께서는 어떠셨나요?

A: 저는 봉사를 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마음도 편안해지고 이전에 운동하면서 허전했던 것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르신들 위한 봉사이지만 제가 힐링되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Q: 대단하십니다. 어쩌면 그런 마음가짐은 타고나야 하는 지도 모르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A: 네, 반드시 아니지만 타고난 봉사정신이 있다면 더욱 좋겠지요. 아마도 저에게는 그런 마음만큼은 타고난 듯합니다. 어르신들을 돕는 것이 마냥 좋으니까요.

Q: 그렇다면 봉사를 하는 사람으로서 지속적인 봉사를 위해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할까요?

A: 우리는 모두 나이를 먹습니다. 지금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만 언젠가는 고려요양병원의 어르신들처럼 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어르신들을 바라보며 마치 내가 그곳에 있는 것처럼 ‘내가 나를 돌보듯이’ 그런 마음이면 충분하리라 봅니다.

Q: 작년 성탄절에서는 산타클로스로 깜짝 변신하셨는데 정말 멋진 산타의 모습이었습니다. 산타로 분장하시고 어르신들이 즐거워하시는 모습보시니 어떠셨나요?

A: 네,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을 즐겁게 해드리는 자리에 같이 동참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저를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손 잡아주시고 기뻐하는 모습에 나 자신도 모르게 활짝 웃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르신들의 즐거운 성탄절을 위해 산타로 변신해주셨습니다.

Q: 마지막으로 2년여의 봉사기간동안 많은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고려요양병원을 위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어르신들을 돌본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무엇보다 직원들의 체력소모가 많을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조금 더 웃어드리고 조금 더 친절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어르신들을 위한 보행보조기구에 대한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시고 고장 시 신속한 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르신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려요양병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병원에서 자주 뵙고 싶네요.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한 웃음과 봉사에 대한 헌신적인 선생님의 마음이 많은 분들에게 전파되길 바랍니다.

— 인터뷰 : 김미희 (고려요양병원, QI전담간호사)

2018년도 고려요양병원 친절캠페인 실시

2018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고려요양병원 친절캠페인'을 진행한다. 친절캠페인의 목적은 올바른 언어사 용을 통해 어르신들이 편안한 병원생활을 하시도록 도와드리는 것이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환자 및 보호자에게 존댓말과 표준어 사용을 지향하고 환자 치료 시 경어를 사용하여 어르신들이 불쾌감을 느끼시지 않고, 케어를 받 는다는 느낌을 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고려요양병원의 새해 첫 캠페인이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조금 더 성숙된 병원문화를 만들어 보길 기대해 본다.

- 글 : 이동우 (고려요양병원, 원무과장)

1월 생신자 명단

이름	음력생신	양력생신
이정인님		02월 03일
정정순님		02월 27일
손옥순님		02월 17일
방성도님	12월 17일	02월 02일
이재순님	01월 04일	02월 19일
예종언님	01월 08일	02월 23일
조연화님	12월 27일	02월 12일
박일례님	12월 21일	02월 06일
김빈자님	12월 30일	02월 15일
최차득님	01월 09일	02월 24일
정동수님	12월 24일	02월 09일
김영식님	01월 06일	02월 21일
서춘애님	12월 22일	02월 07일
남수애님	12월 24일	02월 09일
황봉선님	12월 21일	02월 06일
정윤수님	01월 12일	02월 27일
황보선님	12월 23일	02월 08일
조금주님	12월 21일	02월 06일
홍정순님	12월 28일	02월 13일
김일조님	01월 01일	02월 16일

이름	부서	음력생신	양력생신
권순태	진료부		02월 04일
박명수	진료부		02월 22일
이연희	간호팀(1병동)	12월 26일	02월 11일
김현옥	간호팀(1병동)	01월 04일	02월 19일
서명숙	간호팀(1병동)	01월 06일	02월 21일
신순남	케어프로	12월 19일	02월 04일
김영순	케어프로	01월 02일	02월 17일

병원 안내



달전고려요양병원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달전로 189
Tel. 054-262-2022



포항고려요양병원
경북 포항시 북구 불종로 73-2
Tel. 054-241-1011

고려요양병원의 이야기는 인터넷 / 모바일로도 전해드립니다.

포털 검색창에 [고려요양병원]을 검색해보세요.
홈페이지 : <http://www.goryeoh.com>
블로그 : <http://blog.naver.com/hojunfoundation2009>